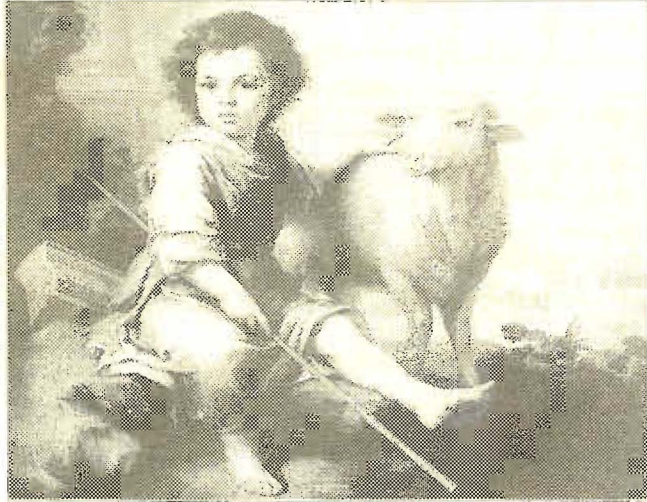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부활 제4주일(성소주일)
제33권 21호(다해) 2013.4.21

[묵상]



착한목자 그리스도 <물러오, 17c, 스페인 마드리드 프라도박물관>

저희를 양이라 부르시고
안전한 울타리를 치시고
행여 길 잃을새라
노심초사 돌보시는,
머리카락 수까지 세어두신
저희의 모두를 아시는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고, 나를 따른다고 하셨으나
어디에서 어떻게 들려오는지
어떤 것이 따르는 것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양.

목자와 양은
서로를 알고 서로를 따름으로써 소통하듯
예수님과 저희의 소통은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고
그 목소리를 알아듣고 행함이니
착한 목자를 자랑스럽게 하는
착한 양들이게 하소서.

- 桓 -

martinlee0501@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면담의 날(신부님, 수녀님) 레지오 마리아	오후 2:00 오후 8:00
목요일	성 시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병자영성체(1째주)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울뜨레아(4째주)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그룹반) M.E. Sharing(3째주)	오전 9:30 오후 7:00
토요일	유아세례(작수달 4째토요일) 소년 레지오 마리아 배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전 9:00 오후 6:00
주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떼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안나회/양업회, 성모회 자모회/대건회/원서회 • 꾸리아 3째주 - 모임의 날 • 요셉회 • 제대회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전 9:30 오후 1:00 오후 1:45 오후 1: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이장환 마르티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오향숙 마우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미사	(연)신종철 (생)박소영 프란체스카 & 박세준 요셉, 이동협 안드레아&장정진 베로니카&이세희프란체스카 오마우라 수녀
주 일 낮 미사	(연)이용식 베드로, 권복남 모니카, 김금점 모니카, 이경용 야고보, 고준희 제임스, 전시웅 요한, 윤춘의 스킴라스티카, 송기인 요셉 & 김재순 아가다, 김풍길 바오로, 엄익찬 안토니오, 정학순 발바라, 송공량 카타리나, 주용범 아브라함, 최윤정 (생)유정복 베네딕도, 이윤조 클라라, 엄세종 그레고리오, 하늘의 문pr.단원들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사도행전 13,14,43-52

화답송 ○우리는 주님의 백성, 그분 목장의 양 떼라네.



○온 세상이 주님께 환성 올려라.
기뻐하며 주님을 섬겨라.
환호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라.○
○너희는 알아라, 주님은 하느님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것,
그분의 백성, 그분 목장의 양 떼라네.○
○주님은 참으로 좋으시고,
그분 자애는 영원하시며,
그분 진실은 대대에 이르신다.○

제 2독서 요한 묵시록(Revelation) 7,9,14-17

복 음 ○알렐루야.
환호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복 음 요한(John) 10,27-30

영성제송 착한 목자, 당신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셨네.
당신 양 떼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네.
알렐루야.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입당	166	169	243
봉헌	401	270	255
성체	주님께서는	284	284
파견	선하신 목자	170	164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 하느님의 말씀에 관하여 -

▶제3부 세상을 위한 말씀

"아무도 하느님을 본 적이 없다. 아버지와 가장 가까운
외아드님, 하느님이신 그분께서 알려주셨다." 요한 1,18)

교회의 사명: 하느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

말씀과 하느님 나라

그것은 위로의 말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개로 부
르고 새로운 인류가 꽃피게 할 그분과의 만남을 가능하게 하
는, 뉘흔드는 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 세례 받은 모든 이의 책임

94). 하느님의 백성은 모두 "파견받은" 백성이므로,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는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세례에서 나
오는 예수그리스도의 모든 제자들의 책임"임을 강조하였습니
다. 그리스도를 믿는 이라면 아무도 성사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는 데에서 유래하는 이 책임에서 벗어나 있다고 느
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의식은 모든 가정, 본당, 공동체, 단체,
교회 운동들에서 되살아나야 합니다. 친교의 신비인 교회는
온전히 선교적이며, 각자는 자신의 생활 신분에 따라 그리스
도교 선포에 분명하게 기여하도록 부름 받고 있습니다.

주교들과 신부들은 그들의 고유한 사명에 따라, 온전히 말씀
에 봉사하며 복음을 선포하고 성사들을 거행하며 신자들에게
성경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가르치도록 첫 번째로 부름 받고 있
습니다. 부제들 역시 그들의 고유한 사명에 따라 이러한 복음
화의 임무에 부름 받았음을 느낄 것입니다.

교회사 전체에서 봉헌 생활은 명시적으로 만민을 향한 선교
(missio ad gentes) 와 가장 어려운 상황들에서 하느님의 말씀
을 선포하고 설교할 임무를 맡을 수 있었고 복음화의 새로운
조건들도 개척했으며, 효과적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하여 용감하게 새로운 길들을 열고 새로운 도전들을 제시하
는 데에서 뛰어났었습니다.

평신도들은 세례에서 직접적으로 도출되는 그들의 예언자적
임무를 수행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일상생활 안에서 복음을
증언하도록 부름 받았습니 다. 이와 관련하여 세계 주교 대의
원 회의 교부들은 "수많은 평신도들, 특히 여성들이 복음의 기
쁨의 첫 증인이었던 마리아 막달레나의 모범을 따라 온 세상
에 퍼져 있는 공동체들 안에서 관대한 투신으로 복음화를 위
해 바치는 봉사에 대하여 열렬한 존경과 감사, 그리고 격려"를
표했습니다.

또한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는, 교회 안에서 교회적인 운동들
과 새로운 공동체들이 이 시대의 복음화를 위한 큰 힘이 되어
복음을 선포하는 새로운 형태들을 발전시키고 있다는 데에 대
해서도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계속>

예수님은 착한 목자일까요?

요즈음 ‘착하다’ 또는 ‘나쁘다’라는 단어가 본래의 의미와는 다르게,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착하다는 말은 말투나 마음씨가 곱고 바르며 상냥하다는 뜻인데 언제부터인지 ‘착한 성장’, ‘착한 가격’, 심지어 ‘착한 고기’라는 말까지 생겼습니다. 게다가 여성들은 ‘착한 남자’보다 ‘나쁜 남자’를 더 좋아한다고도 합니다. ‘나쁜 남자’는 대체적으로 말을 함부로 하거나 상대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유형의 남자를 뜻합니다. 하지만 이런 남자들이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고 있고, 주도적으로 관계를 이끌어줌으로써 상대방을 믿고 따라가도 된다는 신뢰감을 주기 때문에 매력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착한 남자’는 예의 바르고 품성은 고울지 몰라도 웬지 소심하고, 밋밋하고, 답답한 남자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어떤 목자일까요? 오늘 복음에서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요한 10,27-28)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조가 매우 차분하지만 당신이 어떤 목자인지, 그리고 당신의 양떼와 어떤 운명적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확고한 믿음의 사도인 성 바오로의 말씀은 목자이신 예수님의 결연한 의지와 너무 잘 어울립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권능도, 저 높은 곳도, 저 깊은 곳도, 그 밖의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 놓을 수 없습니다.”(로마 8,38-39).

‘주님은 나의 목자’로 잘 알려진 시편 23장에서 우리는 사랑에 빠진 남녀의 멋진 하루를 함께 상상할 수 있습니

다. 상대가 뭘 원하는지를 잘 알고 있고, 거기에 맞춰 상대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 모든 것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이끌어주는 멋진 남자(목자)가 있고, 그래서 행복한 여자(양떼)가 있습니다. 양들은 목자의 목소리에 익숙합니다. 목자는 양들에게 귀찮게 이것저것 묻지 않고도 양들이 어디를 가고 싶어하는지, 무얼 먹고 싶어하는지 훤히 알고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로 데려갑니다. 양들은 생기가 넘칩니다. 양들은 어두운 골짜기에서도 두렵지 않습니다. 맹수들의 위협이 닥치면 목자는 막대기와 지팡이로 그들을 지켜줄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착한 목자”(요한 10,11)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성소 주일입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의 일을 대신하고 있는 모든 성직자 수도자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는 날입니다. 교회는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일하고자 하는 많은 젊은이들을 필요로 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닮은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시도록 기도합시다.

◆김영국 요셉 신부 /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사무총장

커피를 내려 마시다.

커피콩을 갈고 뜨거운 물을 부어 커피를 내려 마시길 즐기는데 커피도 좋지만 내려 마시는 느낌 때문에 자주 커피콩을 갈게 됩니다. 짜내는 것도 아니고 훑는 것도 아니고 끓여내는 것도 아닌, 물을 내리는 만큼 제 것을 내어주는 것.

세상에는 이토록 순한 일도 있어

커피를 내릴 때면 덩달아 마음도 순해지곤 합니다.

◆이영 아녜스 / 수필가

이번주 전례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이은지 수산나	권순길 체칠리아	정미영 미카엘라
제1독서자	박민환 미카엘	김교복 래오	모은기 다두
제2독서자	곽수진 보나	서용숙 에스텔	정명모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머스 남 3반

다음주 전례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이은지 수산나	이호미 엘리사벳	이재용 안드레아
제1독서자	박민환 미카엘	이민상 사도요한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곽수진 보나	정광미 프란체스카	전하현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머스 서 3반

◆ 2013년도 '백삼위 한인성당 장학금' 장학금 신청 안내
올해로 두번째를 맞는 '백삼위 한인성당 장학회'(회장 : 이재정 사도요한)가 선발하는 2013~14연도 장학생을 다음과 같이 신청받습니다.

오늘 부활 제4주일은 성소
주일입니다.

- ◆ **본당 성소후원회에 관심을 ...**
- 성소자 개발과 육성을 위한 본당 후원회(회장 강혜원 아네스)가 작년 성소주일을 기해 구성됐습니다.
 - 성소자를 위한 미사봉헌: 매월 첫목요일 오후 7시30분

- 수혜대상 : 하이스쿨 12학년~대학재학생(1~3학년)
- 자격 : 본당 등록신자로서, 교회봉사를 하며 학교성적이 우수한 학생
- 신청기간 : 4월 28일~5월 31일 * 신청서 : 사무실
- 장학금 지급 : 2013년 8월1일 이후
- 문의 : 본당 신부님

◆ 백삼위 '성령안의 생활 세미나'

- 일시 : 오늘 주일(21일) 오후 1시 강당
- 내용 : 미국 총기문제 안전관리 * 강사 : 송종두 요한

“성령안의 생활 세미나”는 이미 세례받은 신자들의 신앙을
 쇠신하고, 특히 견진성사(6월23일)대상자는 의무적으로
 참석해야하는 교육입니다.

- 일시 : 4월25일(목) 오후 7시30분 미사후
- 대상 : 지난 부활대축일에 세례성사를 받으신분들

● 일정 : 6월 6일(목)~9일(주일)

- 일시 : 4월25일(목) 오후 7시30분 미사후
- 문의 : 이명순 크리스티나 (310)749-0276

● 강사 : 김세을 요셉 신부

- 일시 : 4월28일(주일) 오후 3시30분, 강당
- 팀구성 : 양업희 7명 + 이장환 신부님(8명)
대전희 7명 + 이성주 신부님(8명)

- 영적준비 : 성경읽기(루카복음, 사도행전 19,1-10, 로마서 8장, 고린토1서 11,12-14)와 묵주의 9일기도

- 문의 : 김용 스테파노 체육분과장 ☎(310)926-2248

● 신청마감 : 5월26일

대전교구 천주교 장애인보호 작업장에서 만든 건강김으로
황토소금으로 구워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 판매일시 : 4월28일(주일) * 가격 : 6장x10봉지에 \$10
● 문의 : 정동호 하삼바오로 ☎(310)780-9055

● 참가비 \$30

- 일시 : 4월28일(주일) 오후 6시30분, 강당
- 문의 : 대표부부 정 하상바오로 & 올리아 ☎(310)780-9055

● 문의 : 강혜원 아네스 성령기도회장 ☎(310)780-0369

- 일시 : 5월3일(금) 오후 7시30분(금요 아침미사 없음)
- 5월 성모신심 미사(4일 첫토요일) 없습니다.

● 일정 : 7월 16일(화)~23일(화) * 장소 : 멕시코 캄페체

- 지도 : 나영호 베드로 신부(한국의방선교회후원국장)
- 현지사목 : 최강 스테파노 신부(멕시코 지부)
- 참가비 : \$1,250(왕복항공료 + 현지경비 포함)
- 주관 : 한국의방선교회 한국본부
- 문의 : 오영섭 스테파노 백삼위성당 후원회장 / 동후원회
미주재단 사무차장 ☎(310)922-1502

● 4월 21일(주일) : P.V. 3/4반(오징어덫반 \$3)

- * 주일학교(2학년 햄&치즈 케사디아)
● 4월28일(주일) : 토런스 동1반(카레라이스 \$3)
* 주일학교(12학년 스파게티)

성전헌금

교무금	강미순 강태홍 고천용 김병조 김상규 김성택 김양금 김옥찬 김우용 김 옥 김원호 김재영 김형순 김효진 남명자 박광자 박선희 배기엽 배재일 배태임 안태갑 오신재 윤 철 이경수 이남현 이우성 이일길 이재철 이현주 정순석 정충로 정혜영 조경환 조소영 지경수 최기호 최원석 최의수 현석주 이크리스 한길선례	강미순 강태홍 고천용 김병조 김양금 김우용 김 옥 김원호 김효진 남명자 박선희 안태갑 이경수 이남현 이우성 이현주 정충로 정혜영 지경수 최기호 최원석 이크리스 한길선례	합계 : \$3,175
주일미사헌금: \$2,755	파나마 선교헌금 : \$6,324	감사헌금 : 박이래네	

공지사항

◆ 전진반 부모님과 함께 영화 관람

- 일시 : 오늘주일(21일) 미사후 오전 10시30분~11시30분
- 대상 : 10학년과 전진반 학부모님 필히 참석하세요.
- 제목 : '영원과 하루'
- 장소 : 강당

◆ 첫영성체 교리반/부모님 모임

- 일시 : 4월28일(주일) : 오전 10시30분~11시30분
- 장소 : 2학년교실(성당2층)
- 대상 : 2학년학생과 부모님, 그의 첫영성체교리학생과 부모님
- 비용 : \$20
- 첫영성체 예식 : 6월2일(주일) 낮 11시 미사중
- 문의 : 이진원 루시아 초등부 교무주임 ☎(310)780-8895

◆ 주일학교 서머캠프

- 일시 : 6월28일(금)~30일(주일)
- 장소 : 테미콜라 꽃동네 피젬센터
- 대상 : 3학년~12학년(선착순 60명)
- 참가비 : \$50(5월26일 마감, 6월2일부터 \$70, no refund)
- 문의 : 김나기 바오로 행사코디 ☎(310)709-3343

◆ 고등부(10학년) 전진성사

- 날짜 : 5월18일(토) 오전 10시
- 리허설 : 5월10일(금) 오후 7시30분
- 참회예절 : 5월17일 오후 7시
- 장소 : 성 마가렛 매리 본당
- 문의 : 빈센트 신 전진교리 교사 ☎(310)744-5878

◆ 고등부 신앙대회 (Steubenville, San Diego)

- 대상 : 8학년~12학년
- 일시 : 7월26일(금)~28일(주일)
- 참가비 : \$190(5월19일 마감, 5월26일부터 \$250)
- 문의 : 황선홍 그레고리오 그룹리더 ☎(424)903-6637

소공동체 4월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 차 장		박혜경 레나타 (310)808-5005	
차 장		박은혜 클라우디아 김명재 아가다	
차 장		이희경 크리스티나 김희연 루시아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이순자 비비안나 213-675-0498	이순자 비비안나 213-675-0498 4/20(토) 오전 7시 엠마오대채
	2	김찬구 요한 701-6343	유선식 필립보 213-718-9262 4/13(토) 오후 7시
	3	박현희 프란체스코 592-4739	박진경 클라라 592-4739 4/19(금) 오후 8시
토런스 서 장정진 베로니카 713-7779	1	이진향 아베스 989-0366	박인식 토마스 989-0366 4/14(주일) 오후 5시
	2	유선영 클라라 424-241-5988	이철우 야고보 533-8478 4/12(금) 오후 6시
	3	신정희 클라라 424-903-5051	이기숙 엘리사벳 650-1515 4/19(금) 오전 10시30분 성당
토런스 남 이희경 크리스티나 818-6903	1	오창애 안나 974-2857	엄영숙 마리아 974-2857 4/19(금) 오후 7시30분 성당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박희자 마리아 213-718-9262 4/11(목) 오전 11시 성당
	3	전하현 마리아 213-550-6653	이남현 막시모 424-4000-4228 4/21(주일) 오후 6시
토런스 북 최미영 클라라 895-8624	1	조화숙 안젤라 213-272-8393	조화숙 안젤라 213-272-8393 4/13(토) 팜스프링
	2	1반과 같음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이정자 아그네스 784-0585	1/2	주영애 켈마 818-640-3656	주영애 켈마 818-640-3656 4/13(토) 오후 7시 성당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4	이귀란 아베스 617-3568	도영옥 수산나 617-3568 4/9(화) 오전 10시30분 성당
P. V. 김명재 아가다 866-8778	1	남경희 베네딕타 384-3289	유현화 리디아 541-4305 4/12(금) 오후 7시
	2	금유미 크레센시아 482-9108	김정엽 미카엘 541-6347 4/12(금) 오후 7시
	3	박은혜 클라우디아 377-7063	유석영 레오 213-369-0687 4/12(금) 오후 7시
	4	이귀란 아베스 617-3568	도영옥 수산나 617-3568 4/9(화) 오전 10시30분 성당

이번 주 단체 모임

사목회장단 모임	오후 1시
----------	-------

다음주 단체모임

4월 사목회	오후 1시
--------	-------

남가주 소식

◆ 남가주 M.E. 제12회 골프잔치

- 일시 : 5월4일(토) 오후 1시, 샷건 플레이
- 장소 : 웨스트리지 골프클럽, 라하브라
- 대상 : ME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
- 참가비 : \$100(점심과 저녁식사, 푸짐한 상품)
- 신청 : 본당 ME 대표부부 정동호 하상바오로 & 정병옥 올리아 ☎(310)780-9055

◆ 2013 FIAT 장학금 프로그램 신청

- 신청마감 : 5월31일
- 대상 : 북미주거주 한인가톨릭학생(12학년,대학생,대학원생)
- 본당신부 및 고등부 사목자의 추천서 제출
- 문의 : fiat@fiat.org ☎(714)702-9830

성소, 믿음에 기초를 둔 희망의 징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기쁘게도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개막 50주년을 기념하는 신앙의 해에 성소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공의회 기간 중에 교황 바오로 6세께서는 하느님 아버지께 당신 교회를 위하여 일꾼들을 계속 보내주시기를 간청하며 성소 주일을 제정하셨습니다.

교회는 그 이후 사제 성소

와 봉헌 생활 성소의 중요성을 신자들의 영성과 기도와 사목활동의 중심으로 삼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구원 역사 전체에서 드러나 안과 빛을 주는 진리 하나는 바로 하느님은 당신께서 맺으신 계약에 충실하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든 희망의 확고한 토대가 있습니다. 따라서 희망한다는것은 계약의 약속들을 지키시는 성실하신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과 같습니다.

하느님의 성실하심은 바로 그분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드러난 이 사랑은 우리의 삶에 파고 들어 저마다 자신의 삶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리고 충만한 삶을 위하여 무엇을 내어 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응답하도록 요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과 함께 살도록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초대를 받아들이는 것은 더 이상 우리 자신의 길을 선택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으로 그분에게 주도권을 드리고, 우리의 삶 자체를 그분께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사제 성소와 봉헌 생활 성소는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과, 그분과 나누는 진지하고 확신에 찬 대화에서 나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성소들이 세상을 위한 희망의 징표가 되게 하십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분에 대한 믿음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들이 피상적이고 덧없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예수님을 본받아 다른 이들을 섬기고자 하는 갈망을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고 사랑과 아낌없는 투신의 길, 힘들지만 용기가 필요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닌 희망에 관하여 누가 물어도 대답할”(1베드 3,15) 줄 알게 될 것입니다.

◆교황 베네딕토 16세

(※ 이 담화문은 교황 베네딕토 16세께서 퇴임하시기 전에 작성·서명 하셨습니다.)

줄탁동시

‘부활을 축하합니다.’ 서로 인사를 건네며 선물로 주고받는 부

활달걀(Easter egg)은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물리치고 새로운 생명으로 나타나신 돌무덤의 상징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고, 그 영광에 참여하며, 부활의 기쁜 소식을 널리 전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먹을 것이 귀한 시절에는 달걀은 특별한 날에만 먹을 수 있었지만 현대 생활에서는 흔한 먹을거리다. 그래도 부활절에 주고받는 달걀은 잔칫상의 산해진미(?)처럼 특별하고 맛있다. 달걀 속의 병아리가 껍질을 깨뜨리고 나오기 위하여 껍질 안에서 쪼는 것을 ‘줄’이라 하고, 어미 닭이 밖에서 쪼아 깨뜨리는 것을 ‘탁’이라 한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행하여지므로 사제시간이 될 연분(延紛)이 서로 무르익음의 비유로 쓰인다. 또한 줄탁동시는 ‘참나’를 찾기 위한 여정에서 잃어버린 자신을 발견하는 프로그램에서 자주 사용하기도 한다.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이 발각되면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으로 어떤 집에 숨어 있다가 홀연히 나타난 예수님에게 평화의 인사를 받는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그 후 제자들은 용기를 내어 마음을 예워싸고 있던 두려움의 문을 열고 곳곳에 기쁨을 전한다. 관계에서 어렵고 지치게 하는 누구를 만날 때 내적 평화가 없으면 우리는 숨어 지내던 제자들처럼 자주(또는 가끔) 움츠리고 힘들어하며 마음의 문을 닫는다. 때로는 환경을 탓하거나, 때로는 상대방을 탓하며 불신과 분노의 껍질로 자신을 겹겹이 쌓고 한 발짝 물러난다.

이 땅에 평화가 넘쳐나는 아버지의 나라가 오기를 바라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좀 더 자유롭고 친밀한 나이고 우리이기 위해 이번 부활기간동안 그리스도와 ‘연분 쌓기’, 늘 우리 곁에서 사랑(나)과 세상을 쪼아 깨뜨리고 계신 그리스도의 ‘탁’과 맞물려 가정과 사회에서 자신도 모르게 잃어버린 참나를 찾기 위한 나의 ‘줄’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일상에서 제자 되기 위한 나의 ‘줄’은 어떤 것이 있는지, ‘참나’를 발견하는 노력을 해보면 어떨까? 약점과 상처까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고, 세상의 아픈 소리에 응답할 때 비로소 주님의 평화 안에 머물 수 있지 않을까?

◆김광돈 요셉 / 부산교구 노동사목 사무국장